



현대화 꿈 구축하고 새 청사진 함께 그리자

2024년 전국 인대 정협 회의 특집

정부사업보고에는 어떤 민생 혜택 정책들이 있을까?



‘민생목록’ / 신화넷

- ◆ 낡은 소비품을 새것으로 바꾸도록 장려하고 추동한다. ‘소비촉진년’ 활동을 전개하고 ‘안심소비행동’을 실시한다.
- ◆ 보장성 주택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고 상품주택 관련 기초성 제도를 보완한다.
- ◆ 제2라운드 토지 도급 기한 만료 후 30년 재차 연장하며 전 성 범위내의 시범을 가동한다.
- ◆ 향촌건설행동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충진소, 랭동체인(冷链) 물류, 택배배송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농촌 주택 지진 방지 개조 강도를 확대한다.
- ◆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인지전’(人地钱) 련결정책을 보완한다.
- ◆ 로후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주차장 설치 등 난제의 해결을 추동하고 무장애, 로인 적용 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 ◆ 청년 취업 정책 조처의 촉진을 강화하고 취업창업 지도 서비스를 최

적화한다.

- ◆ 신규 취업 형태의 취업인원을 늘리고 직업상해보장 시범을 확대하며 각종 취업 차별을 단호히 시정한다.
- ◆ 주민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 표준을 30원 올린다.
- ◆ 타지역 의료 결산을 실행하고 보완하며 검사 검증 결과의 상호 인증을 추동한다.
- ◆ 기증의료위생기구의 만성질환, 일상질환의 약물 사용 종류를 확대한다.
- ◆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양로금 월 최저 표준을 20원 올리고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계속 상향 조절한다.
- ◆ 로인 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장기간호보험제도 수립을 추진한다.
- ◆ 공공문화센터의 무료 개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 인민넷 - 조문판

전국정협 14기 2차 회의 첫 ‘위원통로’ 개통



3월 4일, 전국정협 14기 2차 회의 첫 ‘위원통로’ 집단취재 활동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다. / 신화넷

전국정협 14기 2차 회의 첫 ‘위원통로’가 4일 오후 공식 개통되었다. 서로 다른 분야의 9명 전국정협 위원들이 매체의 집중취재를 받았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앙당학교(국가행정학원) 교수인 한보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년초의 여러 경제수치를 보면 중국 경제의 장시기 호전세는 막을 수 없으며 중국 경제의 밝은 전망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혁신, 내수, 개혁, 정책, 안전 등 ‘5장의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신질생산력을 힘써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하며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규 교체(以旧换新)를 잘 실시해야 한다. 제도형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선박과학연구원 연구원인 엄충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교통’호, ‘심해용사’호, ‘분투자’호 잠수기는 루계로 1,100차 이상의 잠수를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세계 과반수의 유인심해잠수 임무는 이들이 집행했다. 4년래 ‘분투자’호는 루계로 230차례 잠수하고 그중 1만미터 이상 잠수를 25차례 진행하면

서 소중한 수치와 견본을 획득하여 세계 심연 과학탐사에 튼튼한 기반을 다져주었다.

근년래 중대 질병, 희귀병에 대한 전사회적인 주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과학원 상해약물연구소 연구원인 오베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이 있는 우리나라의 더 많은 새 약품들이 인민들에게 복지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80% 이상의 혁신약품이 출시되면 2년 안에 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약품 개발이 어렵고 특히 우리가 중사하고 있는 기초 연구 과정이 시간적으로 길지만 이 관건적 고비를 잘 넘기면 환자들에게 무궁무진한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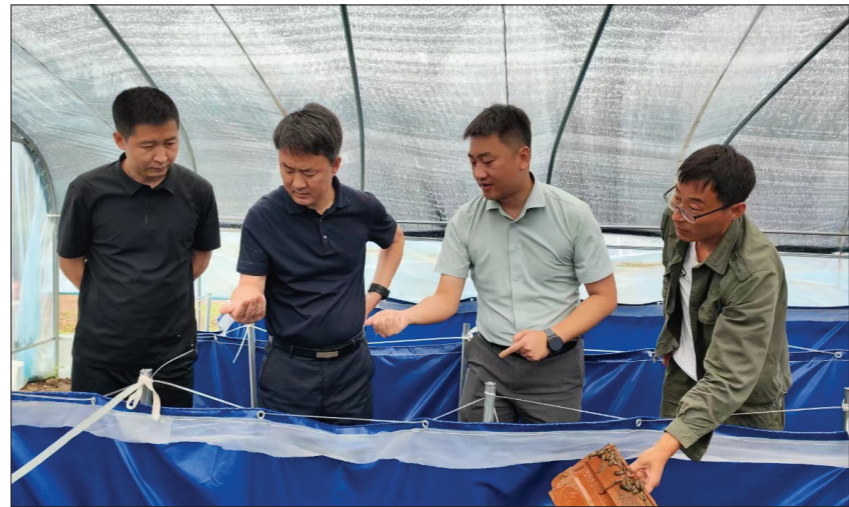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철도청장(青藏) 그룹회사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광길안, 중국로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원장 마영, 중국기상국 과학기술과 기후변화사 부사장 장홍영, 중국장애인연합회 리사이며 중국시각장애인협회 주석인 리경중, 사천성사법청 부청장 정형, 하북성국제특허유한회사 총경리 류서령 등 많은 위원들도 직무 리행의 경험과 감수를 교류하고 공유했다. / 중앙인민방송

전국인대 대표 한영철:

장백현 인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중임을 떠메련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장백조선족자치현인정부 현장인 한영철은 량회를 앞두고 선후로 장백현의 일부 변경 향진과 농업부문, 중점기업에 침입하여 참다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농민들의 불같이 생산준비는 어떠한가?”, “우량종, 농약, 화학비료는 농민들의 농사 수요에 맞게 공급이 잘되어가는가?”, “농촌 독거로인들의 생활은 어떠한가?”를 자세히 문의했으며 부분 중점기업과 민영기업, 민족기업의 운영 상황과 경제효과성에 대해 잘 알아보고 기업가들로부터 생산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담론하기도 했다.

그리고 변경 일선에서 근무하는 당지 주둔부대와 장백변경관리대대 등 군경단위를 돌아보고 변경을 잘 지키고 변경마을의 질서와 사회안정을 견



한영철 대표(좌2)가 향진에 침입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 최창남기자 찍음

결히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한영철은 인대대표로 당선된 그 시 각부터 새로운 형세, 새로운 요구에 따라 인대대표의 책임감, 영예감을

지니고 정치, 리론 학습을 강화하고 새로운 구상을 내었다. 기층 간부로서 책임을 짊어지고 자주 기층에 내려가고 실제에 침입하여 민생문제를

조사연구하고 현구역 경제의 빠른 발전을 계획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인대대표의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영철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장백현 7만여명 여러 민족 인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중임을 떠메고 전국인대대표회에 참가하였다. 이번에 나는 습근평 생태문명사상과 흥변부민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에 근거하여 <생태보호 및 경제발전>, <변경지역 지방재정 부대자급 비례>, <변경지역 의료위생 봉사 능력 강화> 등 세가지 건의를 제기한다. 대회 기간에 장백 경제 발전의 수요, 요구와 밀접히 결부하여 건의를 제기하고 인대대표의 직책을 다하며 변경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다.” / 최창남기자

전국인대 대표 함순녀 옥명희: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 련동하여 치유해야



함순녀대표

새로 개정된 부녀권의보장법 제77조에는 검찰공익소송 조항을 증가했는데 단행법(單行法)에서 공익소송 법률제도를 보조적으로 보완하는 리법 모식을 창조했다.



옥명희대표

법률 조항에 검찰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 경우를 열거한 것은 공익소송 리법 형식에서의 일종 혁신이다. 그 실질은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큰 공익손해문제를 검찰기관이 공

소송을 전개하는 사업 중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연변가무단 부단장인 함순녀는 이 조항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적용하려면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과 공공리익대표의 위치확정(定位)에 립각하여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련결협동을 강화하여 사건 처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함순녀대표는 “최고인민검찰원이 2023년 3월 인쇄 발부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부녀권의보장법>을 관철 실시하여 부녀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데 관한 통지>는 부녀권의 보장에 대한 적시적이고 유력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왕청현항신건축안장유한책임회사 로동자인 옥명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비록 부

녀권의 보장이 새로 추가된 검찰공익소송의 법적 영역이지만 기타 법정 영역이 부녀권의 보장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를 감독하는 과정에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검찰공익소송을 협동 추진하여 체계적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옥명희대표는 “검찰기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데이터 장벽을 타파하고 빅데이터 법률감독 모형을 만들어 원클릭화(一键化) 조사 증거 수집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보 련락원 대오를 구축하여 ‘1+N’ 련동방기제를 형성하고 가정폭력문제를 여러 부문이 련합방지하고 련합정돈할 수 있도록 추진해 전반적으로 련동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정폭력 방지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민넷 - 조문판

전국정협 위원 권충광:

데이터 가치지향 견지하고 데이터 자산관리 강화해야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자산평가협회 부회장이 권충광은 전국정협 회의의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 디지털경제는 신속하게 발전하여 데이터 수집, 표기, 저장, 전송, 관리, 응용 등 전체 생명(全生命) 주기의 가치관 리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부동한 주체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감지, 제어, 관리, 운영과 같은 다중 출처 데이터의 일체화 통합을 실현하는 추세가 분명해지고 있으며 부동한

주체의 데이터 수집, 공유 기제와 부동한 분야의 데이터 표기, 관리응용의 각종 데이터 자원 플랫폼도 다그쳐 구축되고 있다. 데이터경제 시장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데이터 요소 시장의 형성이 다그쳐 추동되고 있다.

데이터 자산관리는 데이터 요소 가치가 류통하는 압창적이지 안정 기이며 데이터 요소 가치 순환은 데이터 자산 가치가 변신하는 촉매제이자 가속기로서 두가지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한다.

데이터 가치지향을 견지하고 데이터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데이터의 ‘3화’ 즉 데이터 ‘자원화, 자산화, 자본화’를 잘하는 것이다. 데이터 자원화는 데이터 가치를 활성화시키는 기초이고 자산화는 응용 수요 차원에서 데이터 서비스 또는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며 자본화는 시장의 방식으로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현금화시키는 것이다. 자본과 토지 등 요소시장의 발전

력사 경험으로 봤을 때 요소가 자원화에서 자산화를 실현하는 것은 결정적 의의가 있는 ‘첫번째 비약’이고 가치화의 관건으로서 제품화와 시장류통을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산화에서 자본화로 나아가는 것은 ‘제2차 비약’으로서 주요 경로에는 데이터 허가사용, 데이터 투자지분, 데이터 신용대출, 데이터 신탁, 데이터 자산증권화 등 방안이 포함된다.

데이터 가치화 과정에서 우리는 제도설계, 류통모식, 수익기제, 안전프라이버시(隐私) 등 방면에 준재할 수 있는 일부 문제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자산 지표 입력전에 데이터 수집, 데이터 세척, 데이터 품질 확인, 데이터 권리 확인, 데이터 저장 등 모든 절차와 고리에 존재하는 중점, 난점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지표 입력이 가치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응용 정경의 데이터 요소 평가

(估值)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가 깊이 잘 연구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요소 가치화 과정으로 보면 기업데이터와 개인데이터에 비해 공공데이터는 류통 가치와 류통 기초가 가장 좋은 데이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바 전사회적 데이터자산 지표 입력의 초석과 돌파구이다.

첫째로 공공데이터는 표준적이고 규범화되었으며 안전보장 제도가 더욱 견건하여 질서적인 류통과 고효율적인 배치를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로 공공데이터는 응용 정경이 많고 승수(乘数) 효과가 뚜렷하며 사데이터와의 통합 및 응용 능력이 강하여 사회 전체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셋째로 자산화 혹은 수권(授权) 경관관리 등 모식은 사회화 개발리용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국유자산 가치를 발굴하며 지방정부의 자산부채표를 개선할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